

자연의 걸작 쇠소깍



서귀포 70경 중 하나인 쇠소깍은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독특한 절경을 보여준다. 이곳은 아름다운 경치가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효돈순환로 | 서귀포시 신호동 656 ~ 서귀포시 신호동 237(약 4.4km)

하효중앙로 | 서귀포시 하효동 1301 ~ 서귀포시 하효동 142-4(약 1.5km)

쇠소깍로 | 서귀포시 하효동 371 ~ 서귀포시 하효동 1070(약 2.2km)

과원도로 | 서귀포시 하효동 476 ~ 서귀포시 하효동 435-2(약 0.3km)

북문로 | 서귀포시 하효동 108 ~ 서귀포시 상호동 377-1(약 2.8km)

신호중앙로 | 서귀포시 신호동 702-5 ~ 서귀포시 신호동 551-3(약 0.8km)

월라봉로 | 서귀포시 신호동 1150 ~ 서귀포시 토평동 192-1(약 1.7km)

상호로 | 서귀포시 신호동 1514-1 ~ 서귀포시 상호동 916-8(약 1.5km)

효돈순환로 | 효돈동

신효동과 하효동에 걸쳐 있는 **효돈순환로**는 효돈동의 세 마을의 중간에서 순환하며 효돈의 각 마을과 연결되고 있다. 쇠소깍이 유명한 효돈동은 서귀포 시내의 가장 동쪽에 위치해 남원읍과 경계를 이룬다. 효돈의 옛 이름은 ‘쉐돈’ 또는 ‘쉐돈’이라고 한다. 여기서 ‘쉐’는 소를 뜻하는 제주어이고, ‘돈’은 여럿이 모여서 이룬 때를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소들을 모아 두었던 곳이라는 의미이다. 한자로 우돈(牛屯)이라고 하다가 18세기 중후반부터 효돈으로 바뀌었다. 효돈동은 중산간 지역인 상효동과 해안가 마을인 하효동, 그리고 가운데에 신효동이 위치한다.

하효중앙로/쇠소깍로 | 하효동 쇠소깍



쇠소깍

하효동의 변화가를 지나는 중심도로가 **하효중앙로**이다. 효돈의 동남쪽 해안가 마을인 하효동은 쇠소깍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을이다. 하효항에서 시작한 이 길은 하효동의 발들을 거쳐 많은 집들이 모여있는 변화가로 이어진다.

하효중앙로 동쪽에 나 있는 **쇠소깍로**는 효돈천을 따라 해안가의 쇠소깍으로 이어지는 길을 말한다. 이 길은 하효동의 일주동로에서 시작해 쇠소깍 해안을 거쳐 칠십리로와 만난다. 쇠소깍은 한라산에서 시작된 효돈천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을 일컫는다. 마을의 옛 이름인 쉐돈에서의 쇠와 연못이라는 뜻의 소, 끝을 나타내는 깍이 합쳐져 쇠소깍이라 부른다. 이곳에서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독특한 절경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다.

쇠소깍에는 애틋한 사연이 담긴 전설이 전한다. 옛날 하효마을에 어느 부자집 외동딸과 동갑내기 머슴은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다. 세월이 흘러 둘은 서로 미래를 약속했지만 부모의 반대가 심했다. 머슴은 쇠소깍 상류에 있는 남내소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주인집 딸은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다. 100일 동안 정성을 다해 간절히 빌었더니 큰 비가 내려 머슴의 시체가 쇠소깍으로 떠내려 왔다. 주인집 딸은 머슴의 시체를 보고 통곡을 하고 나서 냇물에 몸을 던져 머슴의 뒤를 따랐다. 마을 사람들은

주인집 딸의 순수한 사랑과 정절을 기리기 위해 하효마을의 동쪽 동산에 할망당을 마련하여 정성스럽게 모셨다고 한다.

쇠소각에서는 테우와 카약을 타고 아름다운 경치를 직접 물 위에서 감상할 수 있다. 테우에 타면 뱃사공이 직접 노를 저으면서 쇠소각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주 올레길이 이곳으로 연결되면서 많은 올레꾼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이 되고 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여름 환경사랑 쇠소각 검은모래축제를 열어 다양한 체험행사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과원동로/북문로 | 과원과 4·3성

하효중앙로 동쪽에서 일주동로와 효돈순환로를 연결하는 **과원동로**는 제주도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수원 지역을 반영해 이름이 지어졌다. 효돈지역은 현재 상품으로 판매되는 온주밀감과 하귤 등의 품종을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다. 초창기에는 나무를 심고 꺾을 재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득이 낮아 감귤농사를 짓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1960년 이후 감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특산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고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감귤농사를 지어 자식 대학을 보낸다고 해서 감귤나무를 대학나무라고도 불렀다.

하효동의 북쪽으로는 **북문로**가 지난다. 이 길은 4·3사건 당시 한라산 무장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의 북문이 있던 장소를 의미하는 이름이다. 4·3사건이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에 석성을 쌓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성안에 살면서 돌아가며 성문을 지켰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성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지금은 그 흔적들이 대부분 사라져 찾아볼 수 없다.

신효중앙로/월라봉로 | 신효동 월라봉

신효중앙로는 신효동의 중심도로를 의미한다. 효돈로에서 시작해 신효마을회관을 거쳐 하신상로까지 이어진다. 신효동에는 감귤을 테마로 하는 감귤박물관이 있다. 효돈순환로의 서쪽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감귤박물관은 제주의 특산물인 감귤의 역사를 알 수 있고,



감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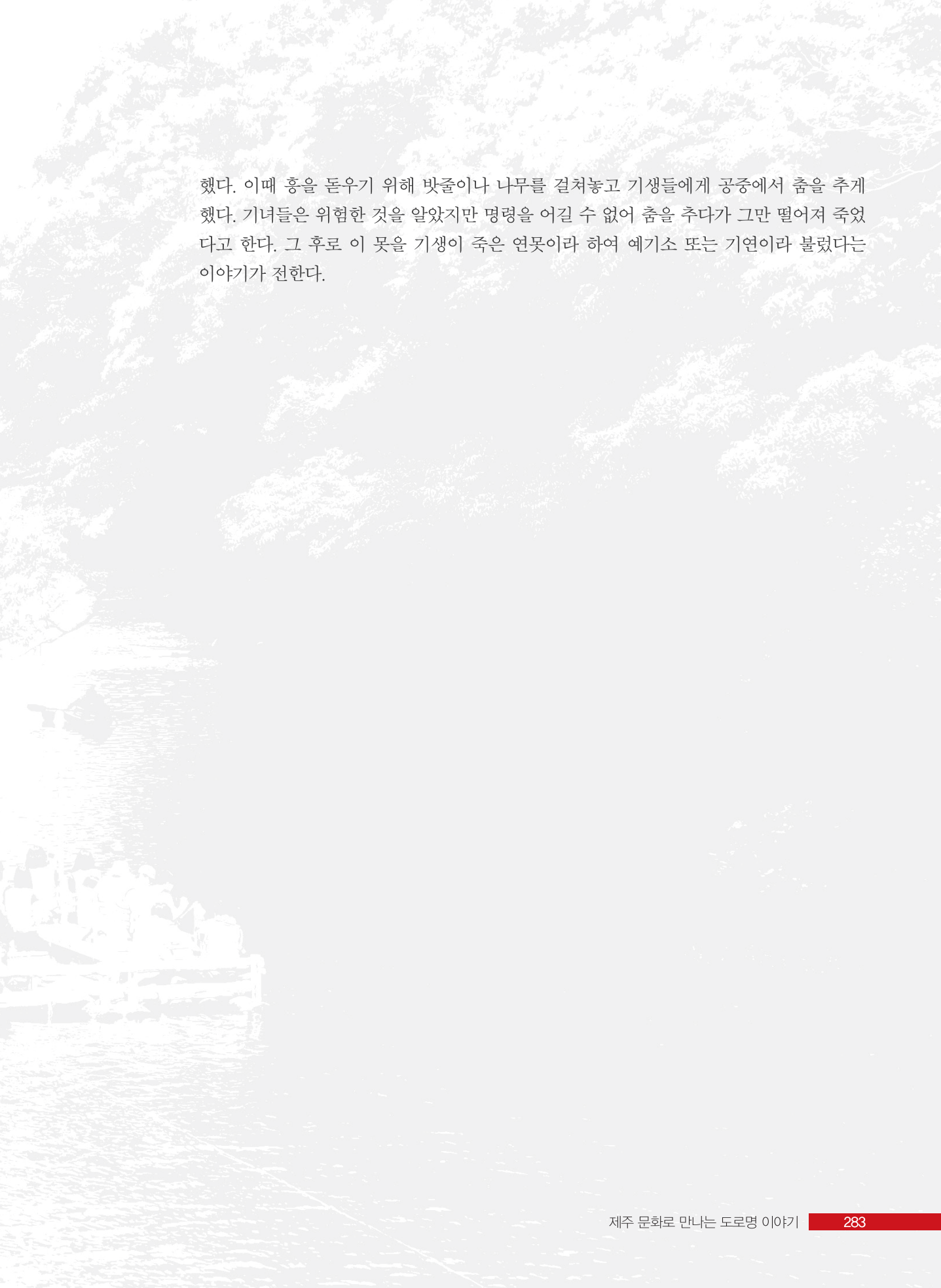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귤나무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다. 감귤 관련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감굴박물관이 들어서 있는 월라봉의 남서쪽으로는 **월라봉로**가 지난다. 달이 비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월라봉에는 감굴박물관이 들어서면서 산책로와 더불어 공원과 같은 쉼터가 조성되었다. 월라봉을 오르다보면 커다란 바위인 애기엿게돌과 구덕찬돌을 만난다. 이 돌들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온다.

옛날 서국이라는 사람이 월라봉의 작은 굴에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서국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밖으로 나가 일을 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밥을 두 세배 더 먹는 식성 때문에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말았다. 아내는 자신이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 애기를 돌봐줄 애기엿게를 구하고 큰 잔치가 있는 집에 일을 하러 내려갔다. 그런데 며칠 동안 잔치가 이어져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애기엿게는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애기를 데리고 동굴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아내를 기다리다 결국 애기를 업은 채 돌로 변하고 말았다. 그 후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 아기와 애기엿게가 보이지 않자 구덕을 들고 찾아나섰는데 이미 돌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아내 역시 돌로 변해버렸다고 한다. 한참 후에야 돌아온 서국은 아내와 아이가 모두 돌로 변한 것을 보고 땅을 치며 울었다고 한다.

상호로 | 예기소

상호동 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길인 **상호로**는 상호동의 서쪽에 있는 상호1동을 지나는 길이다. 상호동은 상호1동과 상호2동으로 나뉘는데 서쪽에 위치한 상호1동에는 과수원들과 밭들이 넓게 펼쳐져 있고, 동쪽에 위치한 상호2동에는 영천악과 침오름, 효돈천 등이 만들어내는 경치가 일품이다. 상호동의 북쪽에는 옛날 관리들이 출장을 갈 때나 중산간에 있는 목장의 말들을 점검할 때 숙소로 사용하던 영천관이 있었다고 전한다. 한양에서 관리들이 내려오면 영천관에 들르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경치가 좋은 곳에서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침오름과 영천악 인근에 있는 못인 예기소에는 한 기생의 죽음과 관련한 전설이 전한다. 옛날 한양에서 말을 점검하기 위해 절제사가 내려왔다고 한다. 영천관에 들른 이 관리를 대접하기 위해 절벽이 잘 내려다보이는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마련



했다. 이때 홍을 돋우기 위해 밧줄이나 나무를 걸쳐놓고 기생들에게 공중에서 춤을 추게 했다. 기녀들은 위험한 것을 알았지만 명령을 어길 수 없어 춤을 추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그 후로 이 못을 기생이 죽은 연못이라 하여 예기소 또는 기연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